

한국 상장기업의 회계투명성 평가

고 영 일
인세회계법인 이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회계학회
가 공동 주관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평가」 심포지엄이 지난 7월13일 대한상공회의
소에서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의 제1주제인 「상장기업 회계투명성 평가」에서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주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회계정보의 질적 속성과 회계투명성 측정지표

본 연구에서는 회계투명성 측정 방법론을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구축하고자 함.

회계투명성의 정의를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높은 질적 속성을 가진 회계정보를 제공하는것”으로
함. 따라서 재무회계개념체계에 따른 질적 속성 즉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회계투명성이 높은 기업들로 정의하고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신
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고자 함.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하여야 함. 목적적합한 정보(relevant information)란 의사결정시점에서 과거 및 현재사건의 평가 또는 미래사건의 결과예측에 도움을 주거나 과거의 평가를 확인 또는 수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말함.

재무제표정보의 질적특성으로서 목적적합성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예측가치와 피드백가치를가지고 적시에 제공될 때 유효하게 확보될 수 있음. 따라서 목적적합성은 다음과 같은 질적특성을 갖추는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음.

- ① 예측가치(predictive value):미래에 대한 예측능력을 제고시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적특성
- ② 피드백가치(feedback value):과거의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적특성
- ③ 적시성(timeliness):정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전에 정보이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정보의 질적특성

본 연구에서는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인 목적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해 회계정보이용자들에 대한 정기공시사항인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재무·비재무정보에 대한 누락여부 및 충실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함. 이를 위해서 사업보고서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작성지침에 충실하게 사업보고서의 주요공시사항이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정보이용자들이 회사에 대한 이해 및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감사보고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충실하게 재무정보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재무제표의 주요내용에 대한 주석사항의 누락과 오류가 없는지를 상세한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점을 부여하고자 함.

재무정보의 주요 질적 속성 중 나머지 한 가지 속성은 신뢰성임.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고 편의(bias)가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마련되었으며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며 정보에 중대한 오류가 없어서 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의 속성을 말함.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비교가능성으로 구분됨.

- ① 표현의 충실성:특정 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거나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나 사건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는 질적특성. 즉 측정치인 정보와 측정대상인 거래나 사건이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의 질적특성임. 재무제표상의 정보가 표현의 충실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형식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또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서는 안되며 정보의 완전성(completeness)를 확보해야 함.

- ② 중립성: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없이 중립적이어야 함. 미리 의도된 결과나성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재무제표상에 특정 정보를 선택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회계정보는 회계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특정 이용자에게 편향되어지는 회계정보를 제공하면 안됨.
- ③ 검증가능성: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서로 다른 측정자들이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

신뢰성의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측정함. 첫째 신뢰성이 없는 회계정보를 제공한 기업의 경우 회계불투명 기업으로 지정하여 추가 분석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임. 금융감독원감리지적 기업, 비적정 감사의견 기업, 불성실공시법인,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기업은 대표적으로 신뢰성이 유지되지 못한 기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계불투명 기업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배제함. 둘째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필수공시사항에 대한 누락이나 기재 불충분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검토를 통한 감점을 부여함으로써 신뢰성을 측정함.

한편 재무제표정보는 기간별 또는 기업간에 상호비교 가능할 때 주요 질적특성인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음. 2차적 회계정보의 질적 속성이라고도 하는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은 두 개의 경제현상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의 질적특성을 말함.

- ① 기업간 비교가능성:특정 기업의 회계정보를 다른 기업의 회계정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성.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으로써 기업간 비교가능성은 제고됨.
- ② 기간간 비교가능성:동일기업내에서 특정 기간의 회계정보를 다른 기간의 회계정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성. 즉 계속성(consistency)으로 구성.

이러한 비교가능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의 작성에 있어서 적용된 회계기준,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및 그 변경의 영향 등이 충분히 공시되어 정보이용자가 유사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기간별 또는 기업간 회계처리방법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본 연구에서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회계원칙의 변경,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에 대한 공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이 적절하게 유지되었는지 검토함.

또한 본 연구에서는 회계투명성의 대상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뿐 아니라 회계관련정보의 공시까지 확장함. 회계정보는 주로 회사제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형태로 주로 공시되지만 사업보고서의 회계 또는 감사관련 공시를 통해 감사보고서 제출이전에도 기업들은 회계정보를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의 회계 또는 감사관련 공시가 부실한 경우 정보이용자들은 잘못된 투자·재무·영업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회계투명성의 목적을 정보이용자들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높은 질적 속성을 가진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재무제표뿐 아니라 사업보고서 공시까지 회계투명성의 측정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회계투명성 측정지수 구축 Framework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회계투명성 측정은 측정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를 고려하여 3step method를 적용함.

- ① 1차단계(회계불투명성 지표 검토): 회계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회계불투명성을 먼저 검토하여 불투명성이 작은 기업들을 우선 회계투명성의 검토대상으로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함. 따라서 전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회계불투명 지표요인(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감리지적여부, 비적정감사의견 및 횡령·배임여부)들을 검토함.
- ② 2차단계(공시정보의 정보유용성 및 적정성 평가): 1차단계에서 조사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공시정보의 적정성을 Checklist를 통해 평가함.
- ③ 3차단계: 1차단계와 2차단계를 거친 기업들을 대상으로 100대 기업들을 선정하고 1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기검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출, 투자자 설명회(IR) 개최 등의 추가적 가감을 거쳐 100위내 기업들의 순위를 산정함.

■ 1단계 분석-회계불투명 기업과 재무성과 비우량기업

본 연구의 분석대상 표본선정 기준 1단계는 PwC Opacity index(2001)에서 수행한 바와 같이 회계불투명 요인들이 존재하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것임.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한국회계투명대상 선정기준 등 여러 연구들을 참조하여 회계불투명성이 존재하는 기업을 추출하기 위한 다음의 지표들을 선정하였음.

- ① 첫째 직전 3년간 비적정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기업들을 회계불투명기업으로 선정하였음. 비적정감사의견의 경우 KIS-VALUE 데이터베이스에서 감사의견정보를 얻었음. 비적정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하여 감사인이 의문을 제기한 경우이기 때문에 회계불투명성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음.
- ② 둘째 직전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들을 회계불투명 기업으로 선정하였음.
- ③ 셋째 직전 3년간 횡령과 배임이 발생한 기업들의 경우 회계불투명 기업으로 선정하였음. 상장기업들의 횡령과 배임발생은 최근 상장기업들에 대한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횡령과 배임은 상당 부분 회계부정과 연결되어 있음.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르는 경영자나 종업원들은 자신들의 횡령과 배임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기 때문임. 횡령과 배임에 관한 정보는 한국거래소상장공시시스템과 금융감독원에서 동시에 수집하였음.
- ④ 넷째 직전 3년간 금융감독원 감리를 통해 지적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의 경우 회계불투명 기업으로 선정하였음. 감리지적기업명단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하였음.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무성과가 양호하지 않은 기업을 1단계에서 선정하여 이를 필터링하였음.

- ① 첫째 분석대상기간인 2010년에 영업이익이 음수인 기업들을 배제하였음. 당기순이익의 경우 일시적·비정상적 요인으로 인해 음의 당기순이익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영업이익이음수인 기업들의 경우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낼 수 없는 기업들이므로 재무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기업으로 볼 수 있음.
- ② 둘째 직전 3년간 누적영업활동현금흐름이 음수인 기업들을 배제하였음. 영업이익이 양호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양호한 영업손익은 발생항목의 증감에 기인한 것일 수 있음. 그러나발생항목의 증감요인이 합산되어 없어지는 3년간의 영업활동현금흐름누계액이 음수인 경우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으로서 재무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기업으로 볼 수 있음.
- ③ 셋째 분석대상기간인 2010년에 자본완전잠식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재무적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기업으로 볼 수 있음.
- ④ 넷째 분석대상기간인 2010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 관리종목으로 지정된기업은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상의 주의를 요하는 기업들로 구분해놓은 경우로서 회계투명성, 재무

적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인 경우가 많음.

- ⑤ 다섯째 직전 3년간 부도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배제하였음. 어음·수표에 부도가 발생한기업의 경우 재무적으로 심각한 곤경이 있다고 보았음.

이러한 회계불투명성 요인이 발견된 기업, 재무적으로 양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1단계에서 선정하고 이를 유가증권상장기업 및 코스닥상장기업 전체기업군에서 배제한결과는 다음과 같음.

KIS-VALUE 데이터베이스에서 재무자료를 구할 수 있었던 전체표본기업은 1,765개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이었으나 이중 2010년12월말 결산재무제표를 발표한 기업은 1,649개기업이었음. 이들 기업들에 대한 1단계작업을 통해 회계불투명성 요인이 발견된 기업, 재무적으로 양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1단계에서 선정하고 이를 유가증권상장기업 및 코스닥상장기업 전체기업군에서 배제한 결과 951개의 기업이 선정되었음.

■ 제2단계 분석-공시재무정보 질에 대한 검토

1. 사업보고서의 공시의 질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에 대한 영업·투자·채무의사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의존하는 공시정보는 바로 사업보고서일 것임. 이러한 이유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서는 사업보고서 공시위반에 대하여 무거운 벌과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많은 회계투명성 지표관련 해외선행연구들은 사업보고서 공시사항의 질적특성을 검토하여 이를 지수화하였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1단계를 거친 분석대상기업들에 대하여 사업보고서 공시의 질을 분석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의 공시사항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공시의 질의 측정변수로 삼고자 하며 후술하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 기업들의 사업보고서공시내용을 검토함. K-IFRS 미도입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 체크리스트항목은 51개, K-IFRS 도입기업의 경우 체크리스트 세부항목은 52개였음.

공시내용에 대한 평가는 이들 사업보고서 체크리스트별 세부항목이 누락되어 있는가 그리고 누락이 없다면 해당내용이 충분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혹은 불충분하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판단하고 이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하고 만일 감점이 단 한 항목도 없는 경우의 총점 즉 누락과 충실도면에서 완벽하게 공시한 경우의 총점에서 감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에 대한 비율로 평점화하였음.

각 항목은 동일 가중으로 평가하였지만 K-IFRS 미도입기업의 경우 K-IFRS관련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일반항목에 비해 2배 높게 평가하였음. 체크리스트별 세부항목이 분석대상기업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감점을 주지 않았음. 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의 사업보고서공시지침에 따르면 사업보고서의 경우 공시항목이 정형화되어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항목에 대한 목차나 명세는 기입하되 “해당사항없음”이라는 표기를 반드시 해야함.

〈표〉 K-IFRS 도입기업의 사업보고서 검토의 주요항목 개요

대구분	중구분
회사의 개요	회사의 개요
	회사의 연혁
	자본금 변동
	주식의 총수 등
	의결권 현황
	배당에 관한 사항
사업의 현황	사업의 개요
	주요 제품, 서비스 등
	주요 원재료
사업의 내용	생산 및 설비
	매출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파생상품거래 현황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연구개발활동
	그밖에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27개년 요약재무정보(재무상태표는 3개년)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	중요한 회계원칙
	K-IFRS로의 전환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대구분	중구분
내부통제	내부통제
재무제표 등	재무제표 등
공정가치 평가절차	공정가치 평가절차 요약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 등의 현황
주주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최대주주 변동현황
	주식의 분포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임원의 현황
	임원의 보수현황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제 등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대주주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우발채무 등
	제재현황 등 그밖의 사항

2. 감사보고서의 공시의 질

감사보고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가장 객관적인 재무공시중 하나임. 본 연구에서는 감사보고서 보고 사항에 대한 공시의 질을 계량화하여 측정함으로써 회계정보투명성을 측정하고자 하였음.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도 사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감사보고서 주석사항 주요공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에 대한 누락여부 혹은 내용의 충분성을 검토하였음.

누락여부에 대한 검토는 우선 재무제표의 해당항목이 존재하는지 먼저 검토하고 재무제표의항목에 대한 주석공시의 누락여부와 내용의 충분성여부를 검토하였음. 이러한 검토를 위해사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주요공시항목에 대한 세부체크리스트를 만들었음. K-IFRS 미도입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 체크리스트 항목은 45개, K-IFRS 도입기업의 경우 체크리스트 세부항목은 57개임.

사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공시내용에 대한 평가는 이들 감사보고서 체크리스트별 세부항목이 누락되어 있는가 그리고 누락이 없다면 해당내용이 충분하게 기술되어있는가 혹은 불충분하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판단하고 이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하고 만일 감점이 단 한 항목도 없는 경우의 총점에서 감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에 대한 비율로 평점화함.

단 감사보고서 체크리스트의 전체평점의 경우는 사업보고서의 전체평점에 비해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함. 감사보고서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비해 회계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감사보고서 공시사항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은 동일 가중으로 평가하였음. 사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K-IFRS 미도입기업의 경우 K-IFRS관련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일반항목에 비해 2배 높게 평가함.

〈표〉 K-IFRS 도입기업의 감사보고서 검토의 주요항목 개요

대구분	중구분
회사의 개요	회사의 개요
재무제표작성기준 및 중요 회계정책	작성기준 및 회계정책(IFRS 중심)
중요한 회계추정과 가정	중요한 회계추정과 가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관련 공시내역
각 계정과목주석 (전기 및 당기 비교)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범주별 금융상품 구분표시
	매출채권 내역
	매도가능증권 내역
	재고자산 명세
	지분법 정보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평가
	유형자산
	영업권
	보험가입자산
	리스거래
	차입금
	파생상품
	퇴직급여채무(확정급여)
	자본

대구분	중구분
각 계정과목주석 (전기 및 당기 비교)	주당이익
	배당금
	법인세비용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
	외화환산손익
	제공받은 담보 및 보증
	제공한 담보 및 보증
	충당부채
	우발채무
	계약사항
	비현금 거래내역
	보고기간후 사건
	금융상품 위험관리 공시
	영업부문별 정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채권 및 채무 (종속회사, 관계회사, 조인트벤처)
	주요 계정과목 명세
	손상징후 검토 및 결과
	영업양수도, 합병 및 분할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3. 기타공시의 질

기타공시사항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 추가감점을 부여하고 총점에 반영함.

- ①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정정공시의 발생여부
- ②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정기공시외의 수시공시사항에 대한 위반여부
- ③ 감사인 강제지정
- ④ 회계변경이 발생한 기업
- ⑤ 영업관련 소송외의 윤리적인 문제 혹은 기타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 ⑥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내부거래현황 공시위반이 발생한 경우
- ⑦ Kothari et al.(2005)가 제안한 방식으로 수행된 성과조정 비정상 재량발생액이 상위 20%, 하위 80% 범위 밖에 있는 경우

⑧ 벌금 및 과징금 부과

이중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정정공시, 수시공시, 법적분쟁, 회계변경, 벌금 및 과징금 부과 자료는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였으며 감사인강제지정 사안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함. 성과조정 비정상 재량발생액의 경우KIS-VALUE 데이터베이스 재무자료의 분석을 통해 계산함.

■ 3단계 분석-100대 상위기업에 대한 추가검토

제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선정된 100위까지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2단계에서 분석한 자료 및 추가적 가점, 감점요인을 분석하였음. 제1단계와 제2단계까지는 주로 회계정보 공시의 문제점 여부를 파악하였다면 제3단계에서는 회계정보이용자에 대한 공시의 적절성과 적극성을 주로 분석하였음. 추가적 검토에 반영된 항목은 다음과 같음.

- ① 분석대상기간 중 최대주주가 변경된 기업: 최근 상장기업들 중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기업들의 회계정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감안함.
- ② 분기검토를 받은 기업: 가점(자발적으로 분기검토를 받은 기업의 경우 추가점을 부여)
- ③ 감사보고서를 조기에 제출한 기업: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보다 20일 먼저 제출한 경우를 조기 제출기업으로 봄.
- ④ 투자자설명회(IR)을 시행한 기업
- 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2011년 투명경영대상기업 선정을 위해서 제2단계에서 선정된 100대 상위기업들을 대상으로 제2단계와 제3단계에서 산정한 배점의 합산 총점을 산정하고 이 합산총점이 높은 기업들을 투명경영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음.

■ 회계투명성 지표 평가결과와 관련산업 재무특성과 주요 오류유형 분석결과

1. 회계투명성 평가 상위 100대기업

유가증권 거래소 상장기업이며 최고점수를 받은 KB금융지주의 경우 회계불투명요인과 재무비우량요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감사보고서의 공시의 질을 검토한 결과 전체 53개 체크항목에서 누락된 사항이 단 1개에 불과하였으며 내용이 부실하게 기재된 항목도 거의 없었음. 또한 사업보고서의 경우도 전체 50개 체크항목 중 48개가 누락이 없었으며 내용이 충실하게 기재되었음. KB금융은 2007년 6월 은행권 최초로 국제회계기준(IFRS)준비단을 구성해 새로운 회계인프라를 구축했으며 감사위원회와 이사회가 IFRS 도입에 적극적으로 간여하고 있음. 적극적으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양질의 회계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음. 또한 동 기업은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활동을 종합한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국내외 주주, 고객 등을 위해 환경보고서, 연차보고서, 사회공헌보고서 등의 내용을 종합한 보고서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됨. 또한 동 기업은 2007년 6월 6일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을 구성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성공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도입추진경과 및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등에 수시보고하여 그룹차원에서의 도입준비를 진행하였음.

유가증권 거래소 상장기업인 에스원은 지수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회계불투명요인과 재무비우량요인이 나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감사보고서 공시사항을 검토한 결과 전체 45개 검토항목 중 2개의 항목만 문제가 나타났고 사업보고서의 경우도 50개의 검토항목 중 2개의 항목만 문제가 있는 등 누락과 내용충실도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었음. 또한 동 기업은 정정공시, 소송,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위반, 비정상 재량발생 등 감점요인이 없었으며 감사보고서의 조기제출, 투자자설명회 개최 등의 가점요인이 있었음. 또한 에스원은 2011년 5월 3일 준법경영 선포식을 개최하여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를 위해 내부통제평가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최고경영자 직속의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음. 또 별도의 내부회계처리매뉴얼을 제정해 모든 자회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승격시험 때도 회계 및 세무과목을 이수토록 하고 있음.

유가증권 거래소 상장기업인 엘지생명과학은 국제회계기준을 조기도입하여 2010년에 국제회계기준에 기초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기업규모가 5,000억원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기검토를 받음으로써 신뢰성 있는 분기재무정보를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한 바 있음.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검토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공시의 질도 비교적 우수한 편이었으며 벌금, 소송, 공정거

래위원회 의무공시위반, 비정상 재량발생액 등 각종 감점사항이 거의 없었음.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지수 1위(전체 순위19위)를 차지한 나이스정보통신(주)는 국제회계기준을 조기 도입하여 2010년에 국제회계기준에 기초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57개에 이르는 국제회계 기준 도입기업 감사보고서 체크리스트 항목 중 누락항목이 거의 없고 내용충분성면에서 만점을 받는 등 도입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감사보고서 공시품질을 유지하였음. 또한 벌금, 소송, 공정거래 위원회 의무공시 위반, 비정상 재량발생액 등 각종 감점사항이 없었음.

〈표〉 회계투명성 평가 상위기업 100대기업 현황

순위	기업명	상장여부	순위	기업명	상장여부
1	KB금융지주	상장	50	동서	코스닥
2	에스원	상장	50	삼천리	상장
3	엘지생명과학	상장	53	넥스콘테크놀러지	코스닥
4	동화약품	상장	53	한국프랜지공업	상장
5	신한금융지주	상장	55	포스코컴텍	코스닥
6	우리금융지주	상장	55	휴스틸	상장
7	케이피케미칼	상장	57	한솔홈데코	상장
8	대구은행	상장	58	남영비비안	상장
9	엘지이노텍	상장	58	제일연마공업	상장
10	호남석유화학	상장	58	조광페인트	상장
11	삼성전기	상장	61	대주전자재료	코스닥
12	현대제철	상장	61	화승인더스트리	상장
13	S&T대우	상장	61	농심	상장
14	국보	상장	64	화승알앤에이	상장
15	KPX그림케미칼	상장	65	진양화학	상장
16	노루홀딩스	상장	65	조일알미늄	상장
17	한국외환은행	상장	65	신일제약	코스닥
18	삼성테크윈	상장	65	세운메디칼	코스닥
19	STX엔진	상장	65	삼아알미늄	상장
19	나이스정보통신	코스닥	70	솔고바이오메디칼	코스닥
21	삼성공조	상장	70	영남제분	코스닥
21	국일제지	코스닥	72	에스이십사	코스닥
21	서울도시가스	상장	72	선진지주	상장
24	엘지화학	상장	72	우성사료	상장

순위	기업명	상장여부	순위	기업명	상장여부
24	케이티앤지	상장	72	일진전기	상장
26	백산오피씨	코스닥	76	신일산업	상장
26	대원제약	상장	77	이루온	코스닥
26	이수화학	상장	77	세원셀론텍	상장
29	듀오백코리아	코스닥	77	일진방직	상장
30	에스케이씨	상장	80	한양디지텍	코스닥
30	위닉스	코스닥	80	대창메탈	코스닥
30	평화홀딩스	상장	80	동양매직	코스닥
33	한국컴퓨터	코스닥	80	메타바이오메드	코스닥
34	고려제약	코스닥	80	대상홀딩스	상장
34	삼양통상	상장	80	경동나비엔	상장
36	하이트맥주	상장	80	신창전기	코스닥
36	서흥캡셀	상장	80	아트라스비엑스	코스닥
38	STX팬오션	상장	88	아이디스	코스닥
39	마이크로컨텍솔루션	코스닥	88	한국제지	상장
39	디아이씨	상장	88	성창에어텍	코스닥
41	엘지생활건강	상장	88	에스텍파마	코스닥
42	삼성정밀화학	상장	88	SK케미칼	상장
42	넥센타이어	상장	93	우진비앤지	코스닥
42	신세계	상장	93	금호전기	상장
42	비티앤아이	코스닥	93	대성미생물연구소	코스닥
42	나우콤	코스닥	93	영보화학	상장
42	백광소재	상장	97	비에이치	코스닥
42	삼영이앤씨	코스닥	97	이녹스	코스닥
49	삼성SDI	상장	97	사조산업	상장
50	F&F	상장	97	LS	상장

상위 100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을 살펴본 결과 대기업들이 기업회계정보 제공에 소극적일 수도 있음을 보여줌. 예컨대 차입금에 대해 설명할 때 수상기업들은 XX은행에서 0%에 빌렸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했지만 이들은 차입금 총 △△△억원식으로 구색 맞추기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음. 최소한의 정보제공에만 그치다 보면 이용자들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2. 회계투명성 평가 상위 100대 기업의 기업특성

2.1 산업분포

상위 100대 기업으로 선정된 표본의 산업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100대 기업들 중 금융산업이 전체 표본기업인 951개 기업 중 8개 기업이 금융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중 5개사(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대구은행, 한국외환은행)가 100대 기업에 포함되어 62.5%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금융산업의 경우 전형적인 규율산업으로 기업 외부감사자들이 많음으로 인해 정보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두 번째로 비율이 높은 산업은 의료장비 및 서비스 산업으로 표본에 포함된 총 14개 기업 중 3개가 100위권에 포함되어 21.4%를 차지하고 있음. 세 번째로는 음식료 및 담배 산업으로 총 49개 기업 중에서 9개가 100위권에 포함되어 18.4%를 차지하고 있음. 다섯 번째로는 유틸리티 산업의 경우 표본에 포함된 총 11개 중 2개가 100위권 안에 들어 18.2%를 차지하고 있음.

100대 기업 내에서는 소재산업이 21개, 즉 2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이 10%, 내구소비재 및 의류산업과 제약 및 바이오산업이 각각 9%를 차지하고 있음.

2.2 재무특성 및 재무비율 비교

〈표〉 표본기업의 재무지표 분석

	100개 표본		100개를 제외한 표본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총자산(단위:백만원)	3,082,238	256,189	1,196,009	123,894
매출액(단위:백만원)	1,069,711	215,279	906,320	115,354
영업현금흐름(단위:백만원)	88,784	11,059	95,016	7,759
주당순이익(단위:원)	4,030	1,080	3,484	765
총자산순이익률	0.067	0.058	0.083	0.071
총자산회전율	0.965	0.870	1.088	0.960
부채비율	0.975	0.580	0.751	0.505
총자산증가율	0.104	0.081	0.176	0.118

전체표본 중 100대 상위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자산규모, 매출액, 영업현금흐름이 그 이외 상장기

업보다 통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상위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의 주당순이익이 그 이외 상장기업 보다 더 높은 반면, 총자산순이익률은 그 이외 상장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활동성의 관점에서는 100대 기업에 있어서의 총자산회전율, 유형자산회전율에서 그 이외 상장기업에서 보다 덜 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부채비율의 경우 100대 기업의 비율이 그 이외 상장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총자산증가율에 있어서는 100대 기업의 성장률이 그 이외의 기업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회계투명성지표가 높게 나타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자산규모, 매출 등의 규모가 크고 현금흐름이 양호하며, 주당순이익이 높지만, 순이익률, 회전율, 부채비율, 자산증가율은 우량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는 결과로서, 규모가 회계투명성에 영향을 미치고, 주당순이익 관점에서 우량한 기업들이 회계투명성이 높다는 점을 보이고 있지만, 순이익률, 회전율 등의 효율성 지표와 부채비율과는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역의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임.

3.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체크리스트상 주요 오류유형

〈표〉 표본기업의 감사보고서 체크리스트상 주요 누락항목(상위 10개 항목)

패널A K-IFRS 미도입기업(914개)

내역	누락율(%)
K-IFRS 도입영향-현금흐름표조정내역, 배당금관련사항 등	94.56
K-IFRS 도입영향-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적 정보	74.95
주요계정과목별 외화환산손익	46.59
K-IFRS 도입영향-연결기업의 범위	36.99
사업부문별 정보	25.37
국고보조금	15.03
K-IFRS 도입영향-K-IFRS과 K-GAAP과의 중요한 차이(세부내역 표시)	12.26
특수관계자 현황(전기, 당기)	9.91
비현금 거래내역 / 현금흐름표	9.28
퇴직급여충당부채	8.00

패널B K-IFRS 도입기업(37개)

내역	누락율(%)
지분법평가내역-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66.67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요약재무정보	61.11
회계정책의 중요한 차이(K-GAAP과 K-IFRS)	55.56
비현금 거래내역	47.22
주요계정과목별 외화환산손익	41.67
K-IFRS로의 전환- 2010년 현금흐름표 조정 내역 언급	38.89
보험가입자산	33.33
주요계정과목별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외화표시금액 / 외화환산금액)	30.56
파생상품 계약 등	30.56
배당금 /배당성향 / 배당수익률	25.00

K-IFRS 미도입기업의 감사보고서 누락항목 분석결과 K-IFRS 도입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항목의 누락율은 그다지 높지 않으나, K-IFRS 도입에 대한 영향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고가 미흡함을 알 수 있음. K-IFRS 채택 직전년도인 2010년의 현금흐름표 조정내역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은 95%의 기업이 누락하여 가장 많은 문제점을 보였으며, K-IFRS 도입이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적 정보, 연결기업의 범위, K-IFRS 도입에 따른 K-GAAP과의 중요한 차이 등의 순으로 K-IFRS 도입 관련 항목의 누락빈도가 높았음. 기타 항목들 중에는 국고보조금에 관한 사항(11번)이 15%로 가장 높은 누락률을 보이고 있음.

K-IFRS 도입기업의 감사보고서 누락항목 분석결과 K-IFRS 미도입기업에 비해 여러 항목들에서 상대적으로 누락률이 높음을 알 수 있음. 지분법평가내역,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요약 재무정보 등의 자회사 관련 보고내용이 가장 많은 누락률을 보였음.

〈표〉 표본기업의 사업보고서 체크리스트상 주요 누락항목(상위 10개 항목)

패널A K-IFRS 미도입기업(914개)

내역	누락율(%)
K-IFRS 도입이 채택직전년도 말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92.00
기업어음증권 발행실적 등	69.72
제재현황 등-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공시대상기간 중에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0.00
K-IFRS 도입이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적 정보 -전환일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채택직전년도 말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42.75

내역	누락율(%)
채무보증현황	39.34
중요한 소송사건	38.70
우발채무 등-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우발자산	38.06
K-IFRS 도입시 연결대상기업의 변화	35.61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30.38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29.85

패널B K-IFRS 도입기업(37개)

내역	누락율(%)
K-IFRS 도입이 채택직전년도 말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52.78
회계정책의 중요한 차이	50.00
기업어음증권 발행실적 등-공시대상기간 중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실적을 기재	44.44
K-IFRS 도입이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적 정보 -전환일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채택직전년도 말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33.33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25.00
회사가 보유 또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파생상품	22.22
대주주와의 자산 양수도 등	19.44
채무보증현황	19.44
제재현황 등-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공시대상기간 중에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19.44
대손충당금 설정현황-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등	16.67

K-IFRS 미도입기업의 사업보고서 역시 K-IFRS 준비 상황에 대한 누락률이 가장 큼. K-IFRS 도입이 채택직전년도 말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K-IFRS 도입이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적 정보 등의 순으로 누락이 많이 나타남. 기타 항목들 중 특히 누락이 많이 된 항목은 기업어음증권 발행 실적 등,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공시대상기간 중에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순이었음.

K-IFRS 도입기업의 사업보고서의 경우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누락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누락률 상위 항목은 K-IFRS 도입이 채택직전년도 말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책의 중요한 차이, 기업어음증권 발행 실적 등, K-IFRS 도입이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적 정보,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의 순이었음.

〈표〉 표본기업의 감사보고서 체크리스트상 주요 불충분 기술 항목(상위 10개 항목)

패널A K-IFRS 미도입기업(914개)

내역	불충분률(%)
K-IFRS 도입영향-현금흐름표조정내역, 배당금관련사항 등	92.00
K-IFRS 도입이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적 정보 -전환일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채택직전년도 말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77.51
주요계정과목별 외화환산손익	69.19
K-IFRS 도입영향-연결기업의 범위	35.71
특수관계자 거래(전기, 당기)	30.49
회사 개요-설립일, 사업내용(제품), 상장일, 상호변경	28.78
특수관계자 채권 및 채무(전기, 당기)	25.80
사업부문별 정보	22.81
단기차입금 명세-차입처/금리/금액(전기, 당기)	17.16
국고보조금	15.88

패널B K-IFRS 도입기업(37개)

내역	불충분률(%)
영업권 구분표시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별도 표시(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91.67
주요계정과목별 외화환산손익	91.67
특수관계자 현황(전기, 당기) -지분율, 자산/부채/수익/당기순이익 반영 요약재무정보	80.56
지분법 평가내역-취득원가/순자산가액/장부가액	77.78
유형자산 증감내역(전기, 당기)	77.78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요약재무정보	63.89
배당금/배당성향/배당수익률	61.11
주요계정과목별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외화표시금액/외화환산금액)	61.11
회계정책의 중요한 차이(K-IFRS와 K-GAAP)	58.33
퇴직급여채무(확정급여)-사외적립자산 및 확정급여채무 변동내역,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52.78

K-IFRS 미도입기업의 감사보고서의 경우 영업권 및 매출채권, 매입채무 별도표시 내역, 주요계정과목별 외화환산손익, 특수관계자 거래, 특수관계자 채권 및 채무 등의 내역이 충분하게 공시되지 않았음.

K-IFRS 도입기업의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도 K-IFRS 미도입기업과 유사하게 특수관계자관련 사항 및 외화관련 사항이 전반적으로 불충분하게 기술되어 있음.

〈표〉 표본기업의 사업보고서 체크리스트상 주요 불충분 기술 항목(상위 10개 항목)

패널A K-IFRS 미도입기업(914개)

내역	불충분률(%)
K-IFRS도입이 채택직전년도말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90.94
기업어음증권 발행실적 등	70.58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50.75
제재현황 등-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공시대상기간 중에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0.43
K-IFRS 도입이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적 정보 -전환일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채택직전년도 말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47.44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46.91
사업개요-회사의 사업부문별 자산, 매출액, 영업손익을 포함한 주요 재무정보의 총액 및 각 항목이 총사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	45.42
유동성현황, 변동내용 및 원인분석, 유동성 부족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42.96
이사회 구성 개요	40.30
중요한 소송사건	39.02

패널B K-IFRS 도입기업(37개)

내역	불충분률(%)
회계정책의 중요한 차이	55.56
K-IFRS도입이 채택직전년도 말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55.56
기업어음증권 발행실적 등	44.44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36.11
K-IFRS 도입이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적 정보 -전환일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채택직전년도 말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36.11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27.78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후속대책 -회계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경우 그 의견	25.00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25.00
회사가 보유 또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파생상품	22.22
재고자산 현황 등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22.22

K-IFRS 미도입기업의 사업보고서의 경우 K-IFRS도입이 채택년도 말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시가 누락도 많았지만, 누락이 없는 경우에도 기술이 불충분하였으며, 국내외의 금융 및 조세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대한 기술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음.

K-IFRS 도입기업의 경우 회계정책의 중요한 차이, K-IFRS 도입이 채택년도 말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누락도 많았지만, 기술이 불충분한 경우도 많이 발견되었으며,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공시대상기간 중에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의 내용의 기술이 불충분하였음. 